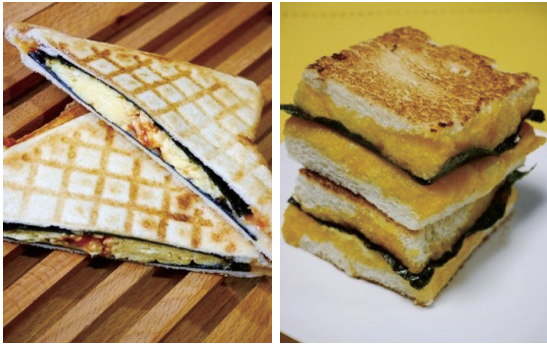


일본 열도에 부는 김 열풍

오사카지사

김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 소개

- 일본 식품신문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서는 가정용 김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명한 하야시 오사무(林修) 씨가 출연하는 정보제공 TV프로그램인 ‘하야시 오사무노 이마데쇼!(7월 3일 방영)’에서 김의 효능을 1시간가량 소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왼쪽부터) 김 샌드위치와 김 토스트

-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레시피 사이트 ‘쿡패드’에서도 김을 넣은 다양한 샌드위치 레시피를 소개할 정도로 김의 인기는 높으며, 이로 인해 김은 밥에만 어울린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빵에 김을 넣어 먹는 등의 새로운 수요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의 평균 단가와 수요 변화

- 과거 일본산 김의 최고 평균단가는 1979년 18.68엔(1장)으로 선물용 등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김의 판매율이 높았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었다.

- 그 이후에는 평균 10~12엔으로 추이되었지만, 2012년도에는 8.58엔으로 최저가를 기록했고 평균단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세였으나, 2017년에는 다시 11.88엔까지 하락했다.
- 이러한 가격의 변화는 시대별로 변화하는 김 수요 및 판매형태와 연관이 있다. 1965년까지 김은 희소가치가 높아 선물용으로 주로 판매되었지만,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주먹밥과 데마키즈시(김 위에 회, 오이, 고추냉이 등을 넣고 취향에 따라 재료를 추가해 넣어 싸먹는 초밥) 등 가정용 김이 용도별로 개발되었다.
- 최근에는 외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용 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7년 가정용 김 시세가 올라 제품 용량이 20~30% 가까이 줄었고 생산량도 감소했다.

2017년도 김 수요량

(단위 :%)

분류	카테고리	매수(억 장)
업무용	편의점 (삼각김밥, 도시락, 김밥 등)	31.8
	인스턴트 반찬	8.9
	초밥류	5.4
	기타	10.6
업무용 합계		56.7
가정용	가정용	19.7
선물용	선물용	4.2
합계		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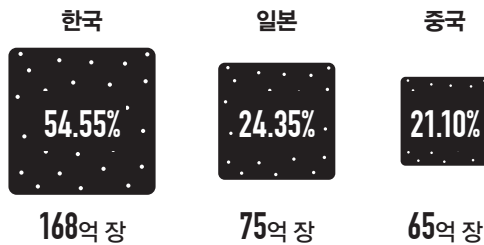
출처 : 일본 식품신문

일본의 김 공판 평균단가(장당 기준)

(단위 : 엔)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단가	9.19	9.94	8.58	9.24	10.48	11.51	13.07	11.88

한중일 김 생산량(2017년)



새로운 수요처 개발을 통한 소비확대가 필요

① 세계의 김 주요 생산국은 한국, 일본, 중국이며, 그중 최대 생산국은 한국이다. 일본 식품신문은 중국과 한국의 생산량 증가의 요인을 바다의 상황과 기후뿐만 아니라 기업체 당 생산규모와 적극적인 설비투자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김 생산규모 확대와 설비투자는 후쿠오카, 사가, 효고현에 한정되며, 기타지역은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최근 일본의 김 생산량과 공판단가는 변동이 잦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김은 회전초밥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③ 김은 식품산업의 반도체라고 한다. 그만큼 여러 제품에 응용이 가능한 기초재료라는 뜻일 것이다. 1990년대까지 조미용 김이 일본 김 수출의 주요품목이었다면 현재는 초밥용에 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향후에는 수요가 많은 김밥, 초밥 외에 빵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요리법을 제안해 김 수요를 확대한다면 더욱 활발한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미케야 공방에서 출시한 김 제품

출처 : 일본 식품신문 「海苔 7.8月販売 1~3 割増 TV番組“林修効果”絶大」(2018.09.12.)
 일본 식품신문 「海苔産業データ解説」(2018.09.12.)
 일본 마이니치신문 「[お弁当に◎] 和風・洋風どっちもうまい! 「のりたまサンド」」(2018.09.18.)
 cookpad.com, store.shopping.yahoo.co.jp